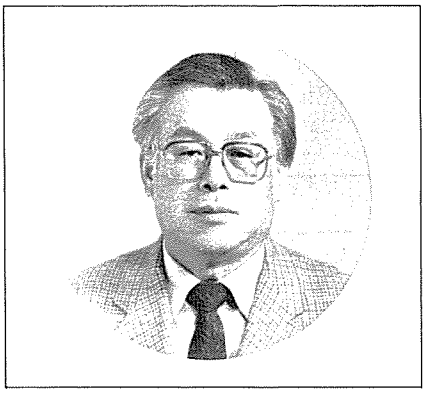
學會탐방

大韓金属学会 를 찾아서

"実質的인 産學協同은 상호利益귀"

70여特別会員 지원은 他學会의 부러움사



韓 鳳 熙 회장

○ 技術이 고도화되고 市場이 다변화 될수 ○
○ 록 企業 혼자 또는 상아탑혼자로서는 高 ○
○ 度産業社會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없게 되 ○
○ 었다. ○
○ 産業界와 學界가 협동함으로써 서로 도 ○
○ 움을 주고받아 다같이 共同發展을 이룩하 ○
○ 는 産學協同体制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는 ○
○ 것이다. 특히 국제경쟁사회에서 최적의 인 ○
○ 적자원 동원, 최고의 기술지식 응용을 위 ○
○ 한 産學協同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
○ 최근 産學協同의 필요성이 강조 되면서 ○
○ 企業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과제를 찾 ○
○ 아내어 학계에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다 ○
○ 시 산업계에 환류시켜 활용케하는 이른바 ○
○ 산업계와 학계의 산학협동무드가 점차 무 ○
○ 르익어 가고 있다. ○
○ 계제에 大韓金屬學會 韓鳳熙회장을 만 ○
○ 나 학회와 산업체간의 産學協同이 어떻게 ○
○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 ○
○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

『産學協同이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업이나 대학의 어느 일방에 의해서가 아니라 쌍방간의 교류에 의해서만이 産學協同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金屬學會 韓鳳熙회장은 學界에서 일방적으로 産業界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도움을 주게되면 기업에서도 자연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한다.

『大韓金屬學會에서는 기업이 절실하게 필요로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서 實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實質的인 情報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韓회장은 7월8일부터 3일간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하는 熱處理강습회가 그 단적인 예가 된다고 말하고 이번 강습회에서는 美國金屬學會의 Text book을 번역,「열처리로의 형태와 구조」등15개과목에 대한 강의를 하고 매 과목마다 시험을 치루게 할 작정이라고 밝힌다.

『예년의 Topic스타일(저명과학자 강연위주)에서 탈피, 현장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기초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강의하는 새로운 형태를 모색해 봤읍니다.』 韓회장은 이번 강습회가 현장실무자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내년부터는 취약부문에 대한 강습회를 다양하게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우리학회는 70여개 기업이 특별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읍니다. 총예산 가운데 이들이 내는 회비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회

원구성비도 학계 및 산업계인사가 55 : 45의 비로 되어 있읍니다.』李光春사무국장은 이와같은 일은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업체를 방문해서 실정을 애기하고 협조를 요청하는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덧붙인다. 특히 이번에 학회 사무실을 옮길 수 있었던 것도 특별회원사인 포항종합제철 박태준 회장의 호의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밝힌다.

따라서 학회도 특별회원으로 가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강습회 및 세미나 개최외에도 學會誌에 기술해설자료를 수록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KS표시허가등의 추천, 애로기술지도, 그리고 기업에서 초빙하기 힘든 외국의 저명금속학자 초청대행등이 바로 그것.

『金屬工學에 대한 학술 및 기술의 향상과 산업진흥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1946년 발족한 金屬學會는 초창기에는 친목단체에 불과했으나 60년대부터 학회다운 면모를 갖추기 시작(63년 학회지 創刊, 74년 學會사무실 마련), 80년도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읍니다.』지금부터가 바로 학회 발전을 위한 도약의 나래를 펼때라고 강조하는 韓회장은 앞으로는 外國學會와의 교류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선진외국기술도입, 보급과 외국석학과의 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밝힌다.

『日本金屬學會, 中國鑛治工程學會와는 이미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밖의 불·독·영·미국과도 정기적으로 인사를 교류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들 학회의 출판물에 대해서는 자국회원과 똑같은 혜택을 부여받고 있지요.』韓회장은 연초에 미·일·독·영·불란서등지를 순방하면서 이들 학회와의 자료 및 정보교환은 물론 유명석학 교류를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힌다.

金屬學會는 또 연내로 金屬用語제정 사업을 마무리질 작정인데 이를 기준으로해서 金屬辭典발간에도 착수, 2 - 3년내로 금속사전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金屬學會는 이미 대학교육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4권의 금속공학시리즈와 금속공학연습시리즈 그리고 금속공학실험지침서를 발간한 바 있다.

韓회장은 또 3천여명이나 되는 회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컴퓨터를 이용, 모든 회원을 전산 관리화하는 작업도 진행중이라고 밝힌다.

『會員의 저변확대와 아울러 學術과 産業協同이 더욱 긴밀해져야 겠읍니다.』韓회장은 급속히 진보해 가는 학문과 기술을 받아들여 산업진흥에 공헌하는데 학회기반이 미흡하다고 전제하면서 회원상호간의 구심점으로써 뿐만아니라 상호이해와 협동으로 학술 및 기술의 향상과 산업진흥에 공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한다.

『소재가 나쁘면 품질도 당연히 나쁘게 마련이지요. 이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소재산업 육성에 힘써야겠읍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공산품에 대한 검·교정을 철저히 해서 우수한 상품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겠읍니다.』韓회장은 최근에는 너무 新소재개발에만 주력하는 경향이라고 지적하고 신소재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본소재 공업발전에 힘써야 겠다고 강조한다.

『科總도 勞總이나 다른 유사기관처럼 과학기술계의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럴려면 정부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육성, 지원해 주어야 겠지요.』韓회장은 科總이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총본산지가 되도록 활발히 활동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면서 科總會館(과학기술회관)도 모든 회원단체들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회의장,전시장,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과학기술센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權光仁 記〉